🍑 해뜸 06:19 해짐 18:54 달뜸 00:54 달짐 10:15

광주 맑음

여수 맑음

완도 맑음

목포 맑음 7/20

나주 맑음 4/22

7/22

9/18

7/23

"꽃구경 하며 건강도 챙겨 일석이조"

●행사 이모저모

가족 단위·지역아동센터 등 참가자 광주천변 3.5km 산책 장애인 생산품 부스 등 '북적'…다양한 공연에 현장 '들썩

○…따뜻한 봄 날씨 속 나들이 겸 걷 기대회를 찾은 시민들은 광주천변 일 대 3.5km를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아빠, 엄마 손을 잡은 어린이 들, 애완견과 함께 봄꽃길 산책에 나 선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 었다. 30일 아동센터 선생님, 친구들 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이은호(12)군 은 "지난해 첫 참가 후 두 번째 걷기대 회다. 날씨도 좋아서 소풍 나온 기분' 이라며 "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 다"고 말했다. 친구들과 함께 걷기대 회에 온 임호빈(20)씨도 "오랜만에 꽃 구경도 하고 천변을 따라 걸으면서 건 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"라고 웃

○…행사장에 마련된 다양한 부스에 도 발걸음이 잇따랐다. 신용회복위원 회는 상담 부스를, 다올엔터테인먼트 는 네일아트&페이스페인팅 부스를 각 각 마련했고 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동 우회 부스 등도 운영됐다. 이 중 풍선나 눔과 페이스페인팅 체험은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광주시각장애인협회 빛고을나눔안 마봉사단 부스에도 눈길이 모였다. ㈜ 어둠속의빛 장애인표준사업장 소속 중 증장애인 21명이 손수 만든 새싹 인삼 주 등 질 좋은 상품들이 참가자들에게

인기를 끌었다. 윤인표 ㈜어둠속의빛 대표이사는 "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낸 상품이기에 더욱 의미 를 갖는 것 같다"며 "심혈을 기울인 상 품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"고 말

○…건기대회 행사와 함께 펼쳐진 다채로운 공연은 시민들에게 볼거리 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. 본격적인 행 사에 앞서 댄싱팀 '앨리스'의 공연은 행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. 4인 조로 구성된 댄스팀 앨리스는 파워풀 한 안무로 큰 박수갈채를 이끌어냈으 며, 걷기에 앞서 시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몸 풀기 체조를 선보였다. 걷 기대회 이후에는 장애인음악단 '풍경 이 있는 소리'가 나서 '희망의 나라로' 등 4곡의 감동적인 악기 연주를 선사 했다. 이어 여성보컬그룹 '킹스밴드'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'질풍가도', '예 술이야' 등 노래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.

○…대회 이후 풍성한 경품 추첨도 진행됐다. 이번 행사에는 43인치 TV, 공기청정기, 자전거, 선풍기, 노스페 이스 상품권, 김부각 등 다양한 상품 이 준비됐다. 추첨 번호가 불릴 때마 다 곳곳에서 환성과 탄식이 터져 나왔 고, 경품을 받으러 달려나가는 시민들 에게 축하 박수도 이어졌다. 이날 자 전거를 경품으로 받은 구원홍(85)씨 는 "평소 걷는 것을 좋아해 매년 광주 매일신문 걷기대회에 참가하는데, 오 늘은 이렇게 좋은 경품까지 타게 돼 두 배로 행복하다"고 밝혔다.

/최명진 기자

양군은



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가 30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과 광주천변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벚꽃사이로 가벼운 발걸음을 하고 있다. /김애리기자

"느리지만 의미있는 발걸음 함께해요"

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-송원대 자원봉사단 '동행' 눈길

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 사랑 건강걷기대회에 특별 한 손님이 찾아왔다. 광주시 각장애인연합회 식구들과 송원대 대학생 자원봉사단 이 그 주인공. 〈사진〉

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 인 학생 10여명이 대학생 보

조요원과 팀을 이뤄 걷기대회에 참가 스를 무사히 완주했다. 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.

들은 대학생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느 리지만 차근차근 걸음을 내딛으며 코 고싶다"고말했다.



김은표(14)양은 "좋은 날씨에 이렇 따뜻한 봄볕 아래 시각장애인 학생 게 나들이 나오니 기분이 좋다"며 "다 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석하 /최명진 기자

"독립할 딸에 필요한 선물하게 돼 기뻐"

●'대상' 김수영씨

"딸이 곧 독립을 한다고 해서 가전제 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, 이게 웬 떡 일까요.(웃음) 1등 TV에 당첨되다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쁩니다."

이날 경품 추첨에서 대상을 받은 김 수영(40·여·치평동)씨는 떨리는 목소 리로 소감을 밝혔다. 평소 스트레스 해 소와 건강 관리를 위해 걷기를 생활하 고 있다는 김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걷기대회에 참여했다.

김씨는 "경품 추첨 시작할 때부터 마

CMYK



1등에 당 첨됐으면 좋겠다고 쉴 새 없 이기도했 다"며 "살 면서 경품 에 당첨된

음속으로

적이 처음이라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 하다. 좋은 기운을 받아 앞으로도 남을 더욱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 아가고 싶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/정은솔기자 다.

"선물 받고 깜짝 놀랄 엄마 생각에 웃음"

+

●'행복상' 양성재군

"공기청정기 선물로 가족들한테 효 자 노릇 톡톡히 하고 싶어요."

이날 경품 추첨에서 행복상(공기청 정기)을 받은 양성재(13·대촌중앙초) 군이 웃으며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.

이날 남구 파란꿈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처음 걷기대회에 참가한 양군은 '행복상에 호명됐을 때 너무 좋은 나머 지 춤까지 추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"며 "같이 온 친구들 중 유일하게 경품에 당첨돼 부러움을 한 몸에 샀다"고 말했

"최근 황 사나미세 먼지, 환 절기 등으 로기침을 많이하는 엄마에게

공기청정 기를 얼른 전해주고 싶다"며 "깜짝 선 물을 받고 눈이 동그래질 엄마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. 내년에 도 걷기대회에 참가하고 싶다"고 환하 게 웃었다. /박현진 기자







오늘일 날씨

서울

5/17

5/14

1/17

대전

강릉

6/16

독도

●전국 날씨 서울 제주 4월 2일(화) **(7/22) (8/16)** \triangle (8/23) \triangle (12/20) \triangle (10/23) \triangle (9/13) (11/17)(14/19)(12/17) \triangle (12/18) \bigcirc (7/13) \bigcirc (9/18) \bigcirc (12/16) 4일(목) \bigcirc (10/20) \bigcirc (9/18)

▶날씨안내 : 국번없이 131